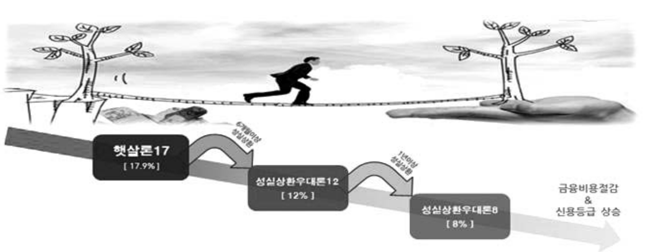
저신용자들의 금융사다리 역할 '톡톡'

전북은행, '성실상환우대론12' 등 지원 통해
금리 8% 추가 감면 '성실상환우대로8' 로 확대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금융비용 절감 상품인 '햇살론17'과 '성실상환우대론12'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연체이력이 있어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이들의 금융기관 안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햇살론17 상품을(연17.9% 최대 1,400만원)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총 20만 5123명에게 1조 2224억 원을 공급했으며, 이중 전북은행은 약 23%에 해당하는 4만 521명에게 2800억 원 상당을 취급해 자산규모 대비 은행권 최고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전북은행은 더 나아가 서민금융 이용 고객들의 실질적인 채무 부담 경감과 신용등급 개선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햇살론17대출을 받은 고객 중 성실상환 고객을 대상으로 '성실상환우대론12' 상품을 판매해 기존보다 약 30% 낮은 금리로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성실상환우대론12'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북은행에서 햇살론17대출을 받은 고객 중 6개월 이상 성실상환중인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약 500명씩 선정해 보다 낮은 금리로(한도 14백만원, 금리 약 12%)으로 대환해주는 전북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사다리 대출상품으로 3월말 현재 1729명에게 110억원 상당을 취급했다.

전북은행은 향후 '성실상환우대론12' 고객을 대상으로 일정조건 충족시 금리를 8%로 추가 감면하는 '성실상환우대론8' 상품으로 확대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서한국 은행장은 "고객의 상환의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전북은행은 '성실상환우대론12'와 같은 상품을 통해 서민금융 이용 고객들의 신용관리와 실질적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용등급 개선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실질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면서 "최근 발표된 햇살론 뱅크 등 정책서민금융공급체계 개편방안에도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은 제2고객센터 확장 이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로 분리 운영하던 제2고객센터를 확장 이전해 본격적인 대고객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이에 맞게 상담인원을 충원한다는 방침이어서 비대면, 디지털 금융거래 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북은행의 고객상담 서비스 품질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지점 3층에 마련된 제2고객센터는 50여석 규모의 상담좌석과 교육장, 회의실, 휴게실, 사랑방 등을 갖추어 상담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확장이전으로 전북은행 본점 고객센터와 제2고객센터의 총 상담좌석은 기존 60석에서 120석으로 확충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근무좌석을 거리두기 기준에 맞게 배치하고,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상담사의 근무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상담인원을 대폭 보강해 최근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고객문의에 대응할 수 있게 됐고 수신, 대출, 카드, 뱅킹 등 업무분야별 맞춤형 전문상담이 가능해져 편리하고 신속한 'ONE 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상 기자

여름철 재난 대비 집중 점검

봄비가 내린다는 곡우에 맞추어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 다가올 여름철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재난예방 활동이 중요해지는 시기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여름철 전기안전 특별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전국 빗물배수펌프장 등 수해 취약시설 1만 789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활동을 펼친다.

공사는 침수우려지역의 누전차단기 설치 유무, 배・분전함 접지 여부 등 풍수해 감전사고 취약요소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공사는 변압기 노후와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파트, 학교시설 등 2055개소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자체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24시간 상황근무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여름철 전기안전과 관련된 각종 문의와 신고는 '전기안전 콜센터(1588-7500)'를 이용하면 안내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조명ICT연구원은 지난 12일 한국식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식품 및 광(光)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식품・광(光) 관련 산업 활성화

식품연, 조명ICT연구원과 협약

한국식품연구원(원장 박동준)과 한국조명ICT연구원(원장 임기성)은 지난 12일 한국식품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식품 및 광(光)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류 관련 광(光) 활용 살균 및 평가 기술 공유 ▲구축 인프라 상호 협력 지원 ▲신규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 양 기관의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식품연구원과 조명ICT연구원은 향후 기술공유 및 시험 서비스 지원, 세미나・심포지움 등의 공동 개최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박동준 한국식품연구원 원장은 "금번 업무협약이 식품과 광(光)학 융합기술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식품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국 16개 건강증진의원
대장암・분변 DNA 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채종일, 이하 건협)는 신규검사항목 확대 및 대장암 검사의 다양성을 위해 분변을 검체로 이용하는 '대장암보조진단' 검사를 지난달 3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30세~80세 성인 중 수검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국 16개 시・도지부 건강증진의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장암보조진단법은 분변에서 DNA를 추출하는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신청하면 수검자에게 분변수집키트를 제공한다. 수검자는 대변샘플(5g, 작은 밤톨 또는 엄지손가락 크기)만 채취하면 된다. 금식, 약물의 영향을 받지 않아 전날의 식사여부, 약물복용 여부와도 무관하다.

건협 전북지부 주현권진료과장은 "분변 채취를 통해 검사가 이루어지므로 대장내시경 전 스크리닝 검사를 원하거나 대장내시경이 어려운 고령자의 대장암 보조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 검사는 보조진단이므로 대장암 등 과거병력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 후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보조진단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람 유전자의 비정상적인 DNA 메틸화 유무를 찾는 것이다. 분변으로 DNA를 분석해서 대장암을 찾는 기법으로, 기존 분변잠혈검사보다 대장암조기발견에 유리하고 대장내시경검사 전 스크리닝 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된장・청국장, 몸에 좋습니다

많이 먹을수록
장 내 유익균 많아져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WHO)와 함께 한국인이 평소 자주 섭취하는 식품과 장내 미생물 균총의 상관관계를 관찰 연구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 된장, 청국장 등 콩으로 만든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많이 먹는 사람일수록 장 내에 건강한 유익균과 다양한 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우리 몸속에 다양하게 분포할수록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알려진 유익한 미생물이 평소 식습관과 깊이 관련돼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농진청이 이번 연구에서 건강한 한국인 성인 222명을 대상으로 일상적인 식품 섭취 습관과 장내 미생물 균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콩 발효식품을 포함해 해조류와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장내 미생물 다양성(α-diversity)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콩 발효식품 섭취가 많을수록 장 속에 락토바실러스(Lactobacillus), 루미노코쿠스(Ruminococcus), 유박테리움(Eubacterium)과 같은 건강에 유익한 미생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성인 10명에게 발효된 청국장 찌개와 발효시키지 않은 콩 찌개를 1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섭취하게 한 뒤 혈액에서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분석해본 결과, 청국장 찌개를 먹은 사람이 이소플라본을 11.9% 더 잘 흡수했다. 이를 통해 이소플라본은 발효를 거치면 인체에 더욱 잘 흡수되는 형태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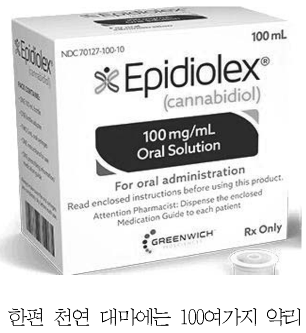
이번 연구 결과 중 발효식품 섭취와 장내 미생물 균총에 대한 연구 내용은 Nutrients 13 (2021년), 콩 이소플라본 흡수에 관한 내용은 Food Chemistry 330 (2020년)에 논문으로 게재됐다.

농진청 기능성식품과 홍하철 과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콩 발효식품이 장내 미생물 다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앞으로 서양인의 식습관과 비교해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계속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에 '희소식'

전북대병원,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의료보험 혜택 적용
천연 대마에서 추출… 월 100만원 넘어 치료 포기 환자 많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에게 탁월한 항경련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에피디올렉스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된다고 13일 밝혔다.

천연 대마에서 추출한 항경련제 에피디올렉스는 2018년 미국 FDA에서 허가돼 2019년 3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수입약 형태로 사용이 가능해져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 치료에 희망이 됐다. 하지만 월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 비용 탓에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았다.

올해 4월부터는 에피디올렉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돼 난치성 소아뇌전증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됐다. 치료제 사용 대상에 모든 뇌전증 환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난치성 뇌전증 중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이 허용되고 있다.

다만 졸림, 식욕감퇴, 간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투약 중인 기존 항경련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투약 전후 철저한 혈액검사 및 기존 항경련제 용량 조절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며, 식약처 마약정책의 허가를 받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 시 담당의사로부터 대마액 처방전과 치료계획서, 난치성 뇌전증 진단서 등 서류 발급이 선행돼야 한다.

한편 천연 대마에는 100여가지 약리 성분이 존재하는데, 치료용 대마액은 천연 대마(Cannabis Savita)에서 추출 정제된 순수 Cannabidid 성분을 말한다. Cannabidid 성분은 THC 등 마약성을 가지는 다른 대마 성분들과는 달리 장기간의 사용에도 금단 증상이나, 환각 등 정신 자극 증상을 초래하지 않고, 경련 조절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 항경련 효과가 입증됐고, 환각 등 정신 자극 작용이 없는 Cannabidiol 성분만을 순수 추출하는데 성공해 본격적으로 임상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난치성 뇌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외국 임상연구 논문에서 탁월한 항경련 효과를 보고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임상 경험이 쌓은 치료 방법이다. /김윤상 기자

국민연금 연구보고서 35종 공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 국민연금연구원은 '2020년 기초연금 수급자 실태분석',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주식 유동성 및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 총 35종의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연구원이 공개한 35종의 보고서는 연금제도연구, 재정추계분석, 기금정책분석 등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020년에 연구한 전 분야에 대해 다뤘다. 발간한 모든 보고서는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http://institute.nps.or.kr)에서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지자체 협력사업 152건 발굴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스쿨팜・농산물 통합 마케팅 등
전북농협, 농업인 소득 증대 기여 효과 큰 사업 선정・지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농업 기반시설 구축과 영농지원 활성화를 통한 농업인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152건의 지자체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1차 사업에 5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1차 지자체협력사업에는 지자체 291억원, 중앙회 55억원, 지역농・축협 131억원, 자부담 28억원 등 총 사업비 505억원을 투입돼 시・군별 특성에 맞게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지원 사업으로는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초등학교 농업체험장 조성을 위한 스쿨팜사업 ▲농산물 판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지 및 통합 마케팅 사업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략품목 육성사업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농작업 대행과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농작물의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항공방제 사업 ▲신소득 대체 작목 육성사업 등이며,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 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지원한다.

정재호 본부장은 "시군별 특색 있는 대표 신소득 작목을 발굴・육성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인 실익중심의 지자체협력사업을 집중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지자체협력사업은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북도, 14개 시군과 농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전북농협은 244개 사업을 발굴해 87억원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약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지자체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탄소중립 '스타트업' 나무심기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2050 탄소중립 실천' start-up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50년까지 국내・외에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저장고를 확대한다는 산림청의 목표에 발맞춰 14일부터 30일까지 매주 1회씩 총 3회에 걸쳐 이뤄질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리산둘레길을 비롯, 관내 지역대학인 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와 함께, 편백나무와 난대상록활엽수를 심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우리가 심는 나무는 자라면서 산림 일자리가 되고, 숲이 돼 지구 환경을 살리며,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며 "나무심기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